

철저한 준비

요즘 들어 신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경기침체 (Recession)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징조들을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일하는 것부터 마켓에 가서 사다가 먹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위축된다. 작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다. 하지만 전 세계 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이 그렇다고 하니 어쩌면 좋은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준비가 참으로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준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신문 공간을 메우고 있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야 할까? 세상은 돈을 준비하라고 한다. 좋은 직업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돈을 되도록이면 아껴 사용하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생명의 준비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다. 그저 빨리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개간하자는 이야기 밖에 없다. 앞으로 30년이면 화성에 백 만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소망 아닌 소망 밖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돈과 다른 별이 나의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편 37절)라고 하신다. 여기에서 화평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이 이야기라는 물질적인 화평인가? 아니면 보장된 미래에 대한 화평인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씀하신다. 거기에서 진정한 화평이 나오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생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제 점점 우리를 깨우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미래를 행복과 만족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눈앞에 있는 일들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지만 가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소식들은 불안정한 이야기들로 요동친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그 동일한 소식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과 확신으로 요동친다. 더욱 전하고, 은혜 받고,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왔다. 지금이 그 때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지금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지금인 것이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가 식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 시간을 아끼고 에너지를 아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다. 그때가 아니라면 언제고 나를 부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